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mpus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었고, 분석 대상은 216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대인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관련성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F=4.42, p=.013$), 대인관계($F=12.26, p<.001$), 생활정도($F=2.91, p<.031$), 건강상태($F=9.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으므로 우울 증재를 위한 전략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mpus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A total of 216 nursing students in some regions were recruited for research perform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2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IN 20.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ampus lif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gra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 financial status, and health status, showed differences. Th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F=4.42, p=.013$), interpersonal relationship ($F=12.26, p<.001$), living standards ($F=2.91, p<.031$), and health status ($F=9.01, p<.001$),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study indicates that self-efficacy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Since self-efficacy can buffer the effect of stress on depression as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mpus life stress and depres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lf-efficacy as a strategy for mediating depression.

Keywords :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Depression, Nursing Student, Non-Face-to-Face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February 21, 2022

Revised March 30,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환경적 변화와 변화된 환경과의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 및 많은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1], 그중 학업, 대인관계, 진로 문제와 경제적 문제 등의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한다[2]. 무엇보다도 대학생활에서 학점 이수, 다양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활 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대학생들에게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다[3].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이 과중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과 국가고시 등과 같은 심리적 압박 등에 의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학습 만족도가 감소하고, 임상실습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온라인 동영상 실습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혼란으로 스트레스가 발생 되고 있다[4].

이러한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병리를 유발하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우울로 나타난다[5]. 게다가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우울,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6]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므로[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대면강의를 교대로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속에서 대학생활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나 무력감, 죄의식 등의 정서를 가져오며,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부정적 상태로[8],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고, 극단의 경우 자살도 유발할 수 있다[9]. 이러한 우울은 간호대학생에게도 흔히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Yu 등[10]의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 수준으로, Hwang 등[6]의 연구에서는 중증도의 우울 수준으로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대학생 시기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인지, 정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까지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11]. 우울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보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는데[12], 이 때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7]일 것이다. 따라서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우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으로,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3].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일상생활에서 능력 있는 태도를 보이며, 일에 대한 성취도도 높아지게 한다[9]. 또한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원으로[9],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스트레스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을 느끼는 정도는 감소한다[14]. 또한,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자신의 학업과 과제를 잘 수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3].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11,15], 자살사고[6], 자기효능감과 관련된[16] 연구는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강의와 대면강의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학생활스트레스를 대처하고 관리하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C도 소재 C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학생, 연구기간 동안 결석자, 외국 유학생,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표본크기는 G 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구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인 .15, 예측요인 10개로 설정하였을 때 176명이 적정수준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일수 조정에 따른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교체 시기로 설문지 회수율이 낮을 것을 고려하여 240부를 배포하였고, 그중 답변을 모두 같이 표시하였거나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24부를 제외한 216부(90%)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여 본 연구대상자는 충분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특성,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종교, 대인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Jeon 등[17]이 개발, 수정 보완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RLSS-C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하위 영역으로 대인관계 차원인 이성과의 관계 6문항, 친구와의 관계 5문항, 가족과의 관계 6문항과 당면 과제 차원인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항, 학업문제 7문항 등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며, 각 문항에서는 지난 1년간 그 사건을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경험빈도와 그 사건의 중요도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빈도만 응답하도록 재구성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생활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0.90$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대학생활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 = 0.92$ 이었다

2.3.2 우울

우울 척도는 Radloff[18]가 개발하고, Jeon 등[19]이 번안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체 20문항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극히 드물게 1일 이하'는 1점, '거의 대부분 5일 이상'을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된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위 영역으로 우울 감정 7문항, 긍정적 감정 4문항, 신체 및 행동둔화 7문항, 대인관계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우울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우울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 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Scale)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등[2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항을 Hong[21]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대인관계 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부정적 진술은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개발 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8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87$ 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는 SPSS PROCESS Macro 3.3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계수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종교, 대인관계, 생활정도, 건강상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39명(18.1%), 여자가 177명(81.9%)이었으며, 나이는 22-24세가 99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22명(10.2%)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7명(26.4%), 2학년 55명(25.5%), 3학년 53명(24.5%), 4학년 51명(23.6%)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군이 101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한다' 15명(6.9%)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15명(53.2%)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66명(30.6%) 이었고, 종교는 '없음'이 155명(71.8%)으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에서는 '좋음'이 160명(74.1%)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53명(24.5%)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는 '중' 수준이 118명(54.6%), '상' 수준이 81명(37.5%)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중간정도' 118명(54.6%), '좋음'이 81명(37.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3.2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자기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의 총 점수는 104.22 ± 27.25 로 척도기준 5점 만점에 $2.08 \pm .59$ 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1.72 \pm .63$ 로 나타났으며,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2.45 \pm .59$ 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총 점수는 33.92 ± 11.32 로 척도기준 $2.22 \pm .44$ 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총 점수 76.88 ± 11.76 로 척도기준 $3.34 \pm .51$ 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37 \pm .57$, 사회적 자기효능감 $3.89 \pm .69$ 로 나타났다 (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자기효능감 수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스트레스를 대학생활만족도($F=8.23, p<.001$)와 성적($F=10.00, p<.001$), 대인관계($F=17.50, p<.001$), 생활정도($F=21.78, p<.001$), 건강상태($F=6.6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 군 $2.20 \pm .62$ 로 만족하는 군 $2.00 \pm .50$ 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은 군은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8.23, p<.001$). 성적에서도 성적이 '낮은' 군은 성적이 '높은'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의 대학생활스트레스 $1.95 \pm .75$, 성적이 '중간'인 군 $2.05 \pm .67$, 성적이 '낮은' 군 $2.43 \pm .73$ 으로 대학생활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F=10.00, p<.001$).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인관계가 '나쁜' 군 $3.42 \pm .51$ 로 대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N=216)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9	18.1
	Female	177	81.9
Age(yr)	19-21	95	44.0
	22-24	99	45.8
	>25	22	10.2
Grade	1st	57	26.4
	2nd	55	25.5
	3rd	53	24.5
	4th	51	23.6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	101	46.8
	Common	100	46.3
	Unsatisfied	15	6.9
Credit	High	66	30.6
	middle	115	53.2
	Low	35	16.2
Religion	Yes	61	28.2
	No	155	71.8
Human relationship	Good	160	74.1
	Moderate	53	24.5
	Poor	3	1.4
Economic status	High	81	37.5
	Middle	118	54.6
	Low	17	7.9
Health state	Good	153	70.8
	Moderate	54	25.0
	Poor	9	4.2

Table 2. Level of stress for college life, depression and self-efficacy (N=216)

Variables		Total score M±SD	Items score M±SD	Range
Stress for college life	Interpersonal stress	39.65±14.67	1.72±.63	1-115
	Challenge stress	66.25±16.00	2.45±.59	1-135
	Total	104.22±27.25	2.08±.54	1-250
Depression		33.92±11.32	2.00±.44	1-80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57.41±9.72	3.37±.57	1-85
	Social self-efficacy	19.46±3.00	3.89±.69	1-25
	Total	76.88±11.76	3.34±.51	1-115

관계가 '좋은' 군 1.99±.50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F=17.50, $p<.001$). 생활정도에서는 생활정도가 '낮은' 군은 생활정도가 '높은'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생활정도가 '낮은' 군 2.67±.64로 생활정도가 '높은' 군의 1.85±.48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F=21.78, $p<.001$).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쁜' 군이 건강상태가 '좋은'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F=6.60,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 활만족도(F=4.42, $p=.013$), 대인관계(F=12.26, $p<.001$), 생활정도(F=2.91, $p<.031$), 건강상태(F=9.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1.91±.36으로 '불만족'하는 군 2.20±.62보다 우울수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다(F=4.42, p=.013).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인관계가 '나쁜' 군 3.2±.27로 대인관계가 '좋은' 군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12.26, p<.001). 생활정도에서는 생활정도가 '낮은' 군은 생활정도가 높은 군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생활정도가 '낮은' 군 2.24±.15로 생활정도가 '중간'수준과 '높은' 군보다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2.91, p<.031).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이 우울 수준이 높았다(F=9.01,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F=6.38, p=.002)와 성적(F=10.48, p<.001), 대인관계(F=9.47, p<.001), 생활정도(F=7.21, p<.001), 건강상태(F=4.89,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3.45±.49로 '불만족'하는 군 3.04±.50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F=6.38, p=.002).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3.51±.59로 성적이 '낮은' 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F=10.48, p<.001).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좋은'군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F=9.47, p<.001). 생활정도에서는 생활정도가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for college life, depression and self-efficac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6)

Variables		Stress for college life			Depression			Self-efficacy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2.09±.52	.125	.898	1.96±.48	-.586	.558	3.411±.54	1.00	.039	
	Female	2.08±.55			2.01±.43			3.42±.50			
Age(yr)	19-21	2.00±.52	1.65	.193	2.00±.40	.026	.879	3.34±.51	.26	.769	
	22-24	2.13±.53			1.99±.46			3.32±.52			
	>25	2.16±.65			1.99±.53			3.40±.48			
Grade	1st ^a	2.00±.51	1.40	.244	1.98±.40	1.75	.157	3.31±.48	1.08	.355	
	2nd ^b	2.02±.54			2.08±.44			a,b<c			3.41±.51
	3rd ^c	2.18±.48			2.09±.49			3.25±.52			
	4th ^d	2.13±.63			1.90±.42			3.38±.52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 ^a	2.00±.50	8.23	.001	1.91±.36a	4.42	.013	3.45±.49	6.38	.002	
	Common ^b	2.08±.53			2.06±.46ab			3.27±.49			b,c<a
	Unsatisfied ^c	2.59±.61			2.20±.62b			3.04±.50			
Credit	High ^a	1.95±.7.55	10.00	.000	1.97±.05	.29	.746	3.51±.59	10.48	.000	
	middle ^b	2.05±.6.70			2.01±.04			3.33±.45			b,c<a
	Low ^c	2.43±7.36			2.04±.07			3.04±.36			
Religion	Yes	2.14±.60	.978	.329	2.05±11.96	1.17	.242	3.35±.46	.296	.718	
	No	2.06±.51			1.98±12.85			3.33±.53			
Human relationship	Good ^a	1.99±.50	17.50	.000	1.97±.41	12.26	.000	3.42±.51	9.47	.000	
	Moderate ^b	2.29±.50			2.00±.44			3.08±.40			a,b<c
	Poor ^c	3.42±.51			3.2±.27			3.40±.68			
Economic status	High ^a	1.85±.48	21.78	.000	2.00±.05	2.91	.031	3.50±.53	7.21	.001	
	Middle ^b	2.15±.48			1.99±.04			3.23±.45			b,c<a
	Low ^c	2.67±.64			2.24±.15			3.34±.61			
Health state	Good ^a	2.00±.51	6.60	.003	1.93±.36	9.01	.000	3.41±.49	4.89	.009	
	Moderate ^b	2.27±.52			2.14±.51			3.17±.52			a,b<c
	Poor ^c	2.32±.82			2.40±.79			3.18±.57			

*a,b,c,d:Duncan test

도 생활정도가 '높은' 군이 $3.50 \pm .53$ 으로 생활정도가 '낮은' 군보다 자기효능감 높게 나타났다($F=7.21, p<.001$).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3.41 \pm .49$ 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F=4.89, p=.009$)(Table 3).

3.4 대상자의 대학생살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살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살스트레스는 우울과($r=.394,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r=-.482,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우울은 자기효능감($r=-.255,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대학생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대학생살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및 Hayes의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22].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결과,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822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 (Tolerance Limits)는 .767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97-1.303으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생살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482, p<.001$), 설명력은 20.5%이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생살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445,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생활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360, p<.001$),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177, p<.001$), 자기효능감이 추가된 생활스트레스 값($\beta=.360, p<.001$)이 매개변수가 없는 생활스트레스 값($\beta=.445, p<.001$)보다 작아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2.3%이었다. 대학생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0185-.1612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for college life, depression and self-efficacy

(N=216)

Variables	Stress for college life		Depression		Self-efficacy	
	r	p	r	p	r	p
Stress for college life	1					
Depression	.394	<.001**	1			
Self-efficacy	-.482	<.001**	-.255	<.001**	1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stress for college life and depression

(N=216)

Step	Model	B	SE	Beta	t	Adjusted R ²	F	p
1	Stress College Life →Self-efficacy	-2.08	0.26	-.482	-8.056	.205	64.90	<.001
2	Stress College Life →Depression	.185	0.25	.445	7.27	.198	52.91	<.001
3	Stress College Life→Depression	.150	0.29	.360	5.21	.223	30.44	<.001
	Self-efficacy →Depression	-1.71	0.67	-.177	-2.56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Stress College Lif →Self-efficacy→Depression				.0855	.0355	.0185	.1612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07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23]의 연구에서 2.5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ng과 Kang[24]의 연구에서 2.18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는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대인관계, 생활정도,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인 군에서 2.59점으로 대학생활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성적에서는 성적이 낮은 군에서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생활정도가 낮은 군에서, 건강상태가 나쁜 군에서도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5,26]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성적이 낮은 경우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학업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대학 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정도에서는 생활정도가 낮은 군에서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5]에서도 생활정도와 생활스트레스는 관련성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제상황이 열악한 경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27]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 속에서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스마트기기의 의존성이 높아 지출이 커지면서 생활정도가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지만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여건으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정도는 80점 만점에 33.92점으로 척도기준 점수는 2.0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Han 등[28]의 연구의 2.62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된 연구[27]에서는 6점 척도에 총점 16.7점, 척도기준 2.7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측정 도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추후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는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대인관계, 생활정도,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인 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고, 성적이 낮은 군, 대인관계가 나쁜 군, 생활상태가 낮은 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4]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우울 경향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전공수업의 지속적 비대면 진행 등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완화 시켜 우울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와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9]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무력감이나 또 다른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며 자살 등의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11]. 또한, 경제상황이 열악한 경우 경제적 부담감은 정서적 불안, 우울을 초래하기도 하므로[30],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학교 내 상담센터나 지지자원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30]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쁜 것으로 인식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변수기준 점수 3.3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31]의 3.04점 보다는 높았고, Yun 등[32]의 3.48점 보다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대인관계, 생활정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33]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우울,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므로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우울에도 관련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Yun[3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건강유지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나 자기효능감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로, 자기효능감과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우울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나 우울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27,34] 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간호대학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학업 수행에도 자신감이 있어 우울에 대처능력도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의 만족과 안정된 대인관계 유지 및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라고 한 선행연구의[10]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이 코로나19로 비 대면과 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우울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안정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생활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강화시킬 수 있는 집단 활동 및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과의 관련성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대인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를, 자기효능감과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으므로 우울 중재를 위한 전략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학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중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긍정적 심리 상담활동 및 지지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복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K. H. Park, E. H. Jung, "Impact of stress on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5, No.5, pp.549-558, 2013.
DOI: <https://doi.org/10.7475/kjan.2013.25.5.549>
- [2] Y. K. Kim, S. H. Kwon, H. G. S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3, pp.1579-1593, 2018.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8.20.3.1579>
- [3]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2, pp.261-268, 2012.
DOI: <https://doi.org/10.7739/ikafn.2012.19.2.261>
- [4] M. M. Park, J. H. Shin, "The effect of on line substitution class caused by corona virus(covid-19)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and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9, No.1, pp.77-86, Jul. 2021.
DOI: <https://doi.org/10.22961/JHCLS.2021.9.1.77>
- [5] S. H. Jun, "Testing the buffering effects of social network service's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 study in gender siffere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23, No.4, pp.5-25, 2012.
UCI(KEPA): I410-ECN-0101-2014-334-000832677
- [6] E. H. Hwang, K. H. Kim, S. J. Shin, "The effect of life stress,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1, No.3, pp.239-248, 2016.
DOI: <https://doi.org/10.21097/ksw.2016.08.11.3.239>
- [7] H. J. Le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n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3, pp.295-314,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3.295>
- [8] Battle, J.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ical Report*, Vol.42, pp.745-746, 1978.
DOI: <https://doi.org/10.2466/pr0.1978.42.3.745>
- [9] H. M. Park,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s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in regards to 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 ed of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pp.2-34, 2013.
- [10] S. J. Yu, M. R. Song, E. M. Kim, "Factorctor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71-80, 2014.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4.20.1.71>
- [11] Y. K. Kwang,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depression sever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4, No. 2, pp. 125-134, 2014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4.12.31>
- [12] M. S. Yoon, H. J. Jung "The effect of stress reaction on the resili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486-493,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486>
- [13] E. J. Yoo, S. K. Kim, S. H. Joung, A study on stress of coiiage life and self eddicacy on depression among, students from beauty-related colleg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1, No.9, pp.279-287, 2013.
DOI: <https://doi.org/10.14400/JDPM.2013.11.9.279>
- [14] J. E. Lee, E.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11, pp.1-20, 2015.
UCI : G704-000387.2015.22.11.001
- [15] C. J. Chen, Y. C. H. C. Sung, T. C. Hsieh, M. S. Lee, C. Y. Chang, "Th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junior college nursing students; a cross sectional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2, pp. 590-598, 2015.
DOI: <https://doi.org/10.1111/jpm.12252>
- [16] P. K. Maciejewski, H. G. Prigerson, C. M. Mazure, "Self-efficacy as a mediator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depressive symptom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76, pp.373-378, 2000.
DOI: <https://doi.org/10.1192/bip.176.4.373>
- [17] J. G. Jeon, G. H. Kim, J. S. Lee,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No.2, pp.316-335, 2000
- [18]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pp.385-401, 1977.
DOI: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19] G. G. Jeon, S. J. Choi, B. 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Health*, Vol.6, No.1, pp.59-76. 2001.
- [20] M. Sherer, J. E. Maddux, B. Meracndante S. Prentice-Dunn, B. Jacops, R. W. Rogers,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1982
DOI: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21]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22]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2013.
DOI: <https://doi.org/10.1111/jedm.12050>
- [23] K. H. Yoo, "A Medi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for College Life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5, No.1, pp.125-135, 2019.
DOI: <http://doi.org/10.5977/ikasne.2019.25.1.125>
- [24] M. Kaong, Y. J. K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lif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9, No.1, pp.1-22, 2012.
Available From:: G704-SER000009521.2012.19.1.002
- [25] S. M. Kim, J. M.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2, No.1, pp.17-24, 2012.

- [26] S. K. Choi,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5, pp.257-266,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57>
- [27]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259-26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59>
- [28] S. S. Han, S. Y. Lee, W. S. Choi, S. J. Kim, S. B. Park, S. Y. Lee, "Depress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korean medical and engineering students in urban areas using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30, pp.539-548, 2009.
- [29] J. S. Lee, S.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4, pp.239-248, 2016.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4.239>
- [30] Y. S. Kim, "Academic stress, dytime sleepiness, depression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5, pp. 867-883, 2018.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5.082>
- [31] J. S Kim, S. U. Kim, "A converged study on the effects of self efficacy on depression stress, self -estee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5, pp.48-54,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5.048>
- [32] S. Y. Yum, M. S. Kim,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2, pp.363-372.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2.363>
- [33] A. R. Chaderi, B. Rangaiah,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mong indian and iranian students, *J Psychosoc Res*, Vol.6, No.2, pp.231-240, 2011. Available From: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939966/>
- [34] M. Y. Seong, O. S. Kim, Y. O. Jung, S. H. Sok, "Comparisons of clinical practicum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type d personality and non-type d persona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6, No.3, pp.217-225, 2017.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3.217>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